

예술가의 순수한 노동

March 2021 | 윤혜정 국제갤러리 디렉터

ART ESSAY



유영국 <Work>, 1973, Oil on Canvas, 136x136cm, Courtesy of Youn Kuk Art Foundation.

예술가의 순수한 노동

추상화가 유영국의 산 그림 앞에서 받는 감동을 송고라 부를 수 있다면, 이는 그림을 그린다는 것과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의 본질을 평등하게 통하며 탐구한 자를 향한 경이보다 다름없다.

“예술가들의 공통점 무엇인가요? <나의 사적인 예술가들> 출간 후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다. 미술가, 배우, 문학가, 건축가, 음악가, 사진가, 출판인까지, 각기 다른 문화로 아우르는 19인의 예술가 면담이 같은 점이 있을 리 만무했다. 겨우 찾은 교집합이라면, 서문에도 썼듯, 자율성과 목적의식, 그리고 엄청난 자유의 대가이기도 한 불확정성과 불안한 매 순간 극복해내는 용기와 한 발씩 나아가는 소명의식이다. 하지만 이들이 천성적으로 태도라거나 하늘로부터 영감을 받는 것은 대단한 인종이라는 찬사처럼 들리는 탓에 오히려 소지가 있다. 모르긴 해도, 미국의 미술가 척 클로스도 그래서 ‘영감은 깨나 줘야 리라,’고 독설했을 것이다. 이렇든 이 자리를 빌려 부연설명하자면, 내가 어떤 예술가를 진심으로 존중하게 되는 순간은 그 용기가 꾸준한 작업하는 노동, 머리와 눈, 손과 발에서 나오는 것임을 세삼 견할 때다. 예술가들은, 심지어 연날 파티장에만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은 분명한 이질자들, 놀라운 정도로 근면성실하다.

그가 살면서 경험한 괴짜와 비극을 향한 갈망에 맞서는 이로운 해독제 역할을 해주었다.” 나는 출간 시점에 맞춰 관련 영상 제작을 디렉팅했다. 담당자들은 유영국이 그린 그림 속 산과 최대한 비슷한 산을 찾아보겠다고 나섰다. 사진 대어 사이트를 뒤졌고 급기야 강원도까지 찾아가기도 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방방곡곡을 다니며 항공 촬영까지 분사했다더니 그의 그림 속 산과 똑같은 산을 찾아한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했을 것이다. 유영국은 산을 ‘재현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산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명언을 남긴 그가 그런 산은 실재하는 산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존재하는 산이다. 관념 안에 딱딱 없이 덩그러니 갇힌 산이 아니라, 고단한 인생과 강력한 시대적 상황, 미술에 대한 열정과 현실의 한계 등이 치열히 충돌하고 갈등하여 마침내 조화를 이뤄낸 산이 있는 산이다. 이 유일무이한 산은 유영국에게 독자적이고도 절대적인 세계였다. ‘산을 그리다 보면 그 속에 굶어 굶이 깊어 있다. 꼭 나의 인생 같다. 내 그림 속 산에는 여러 행상의 삶이 숨겨져 있다.’ <아름다움> Vol. 3(6) 작가의 자아성찰적 소회는 추상의 숨은 의미, 즉 ‘생상을 해석하고 살이내는 고유한 논리를 창조하는 과정’임을 실감하게 한다. 미술제도 어떤 분야만큼이나 스타를 원하는 곳인 데 비해, 유영국이 다른 근대 작가들에 비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평론가들은 그를 ‘이렇다 할 장식도, 수상도, 기교도 없이 과묵하게 살아온 작가’ 혹은 ‘수도원의 수사’라 기술했다. 물론 유영국은 미술계 혁신을 위해 활동을 도모하고, ‘한국상을 세련되게 표현한 흔적은 모더니스트였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에게는 생상이 기대하는 문학적 신화나 낭만적 기행담이 없었다. 그는 해방과 전쟁 전후 낙항과 상경을 반복한 십 수년의 시간 동안 붓을 쥐었다.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양조업과 이업 등에 종사하며 생계를 책임지는 ‘전과 아버지’였던 것이다. 덕분에 그는 1964년 지친 몸의 나이에서야 첫 번째 개인전을 열 수 있었다. 예상하겠지만, 미술제도에 관습에 출세하고자 하는 욕망도 없었다. 당시 구대의 상징이었던 ‘국전’에 반대하는 전시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대 미대 교수직을 내린 것도, 작업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홍대 미대 교수직을 버렸다. 작품 제작조차 인성적 일 정도로 담백했다. 거의 대부분은 ‘작업(Work)’이 그 공간이 ‘산’보다 훨씬 상이한 정도다. 그런 점에서 1968년 11월 21일 <코리타티스>에서 ‘주디 도스카’ 쓴 바는 지금도 유효하다. ‘유영국 그림의 표면은 순수하고, 이는 화가 자신의 진실성을 증명한다. 지난 20년 동안 재능도 사라진 것은 사람의 현실적인 직업은 요충 현대미술가들이 획득하는 보상을 받지 못했다. (중략) 여기, 자연과 조화를 이룬 한 남자가 있다. 그는 결별된 세상에서 열정과 성실함을 견출한다. 거짓된 겸손은 없

다. 그가 스스로 배운 모든 것, 그리고 현재의 예술계에서 얻지 못한 모든 것, 그가 말하는 바는 거짓 지만 순수하고 한국적이다.” 예술과 삶을 같은 보폭으로 걸은 유영국의 그림은 필수불가결하게 사양의 추상미술가들이 당연시하는 ‘송고(sublim)’의 미학을 떠올리게 한다. 다만 예컨대 마크 로스코의 송고미가 막연하고 아득하며 환상적이라면, 유영국의 송고는 이 땅에서 나고 자란 지만이 공감할 수 있는 역사와 기억, 그 한편에서 터져 나오는 단식이다. 바람과 서리를 맞으며 선 하나 후 그루도 어찌며 어김 줄이는 서정, 그 고독함과 초연함에 감탄할 줄 아는 성정의 작가라는 본인 입으로 ‘송고’라는 단어를 내뱉은 적 없었다. 그에게 그림은 초월의 대상이 아니라 현실의 대상인 동시에 삶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추상의 과정을 거쳐 거주장소로서의 땅은, 상사, 심지어 살점까지 다 걷어낸 후에 남은 뼈대는 곧 본질을 의미한다. 유영국의 산 그림 앞에서 받는 감동을 ‘송고라’ 부를 수 있다면, 이는 그림을 그린다는 것과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의 본질을 평등 탐구한 자를 향한 경이보다 다름없다. “나는 항상 60세가 될 때까지 그림의 기쁨을 탐구하다가 자연으로의 회귀를 통해 무너뜨려온 걸음을 재계해왔다는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었습니다. 그림 앞에 서면 내 스스로 각오와 흥분으로 평행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새로 태어난 것처럼 말이지, 저는 죽는 날까지 이 긴장의 끈을 제 마음속에 단단히 묶으려는 제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Youn Kuk 1916-2002> The most beloved painter in Korea) 4, 미르(에이북스) 유영국은 스스로 배태받지 못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평생을 이세 밖을 돈 두 바가지처럼 살았다. 오래 바라보고 끝까지 사랑한 사람일수록은 애정으로, 생상의 인정을 받는 대신 슬퍼 예술을 자기의 지대로 끌고 나가고 노역한 사람만이 완성할 수 있는 세계를 이루었다. 하지만 만약 그가 특별한 노동처럼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면 그의 그림이 이렇게 끈기할 수 있었을까, 누군가가 ‘제능’ 있다는 건 끝까지 상진하고 순수하다는 것과 동의어인 일, 유영국은 온 생으로 증명했다. 물론 그 사람이 절망이 변했다. 생상은 ‘단면성실’의 미덕을 시대적으로야 지부하가, 빛나는 재능을 위한 기복만 창조도 행복만이라고 위약을 한다. 기본보다는 기교를 높이 사고, 현실의 두려움 때문에 자유와 자를 상을 희희하며, 자신과 자만을 구분하지 못하고, 순수함이 비롯음의 대상이 되는 세계에서 우리도 문득문득 그렇게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누구 나 자기 삶을 고유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예술가가 될 수 있다고 초연하게 증명했다. 그러나 유영국처럼 순수하고 성실한 예술가가 되려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했다. 물론 그런 사람이 되긴 더 힘들겠지만 말이다. **윤혜정 국제갤러리 디렉터**